특집 / IMF 관리체제하의 농업동향과 정책방향

IMF 자금지원을 받은 주요국의 경험과 시사점

윤 호 섭* 성 명 환** 최 윤 국*** 김 경 덕****

1. 서 론
2. 멕시코
3. 태 국
4. 인도네시아
5. 인 도
6. 영 국
7. 시사점
8. 요약 및 결론

1. 서 론

우리 나라는 1997년 12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로부터 유동성 조절자금(통상 구제금융이라고 함)을 받기 시작함에 따라 "IMF 관리체제"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이후 경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즉, 금융산업과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등 경제전반에 걸쳐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크고 세계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제2의 외환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보다 먼저 외환위기를 맞이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던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IMF의 자금을 지원 받았던 국가들의 경제상황과 정책변화를 검토함으로써 교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던 국가들의 외환위기시의 농업정책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시에 우리 농정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던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영국 등을 사례로 선택하여 경제위기시의 농정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 연구위원
** 부연구위원
*** 책임연구원
**** 부연구위원

2. 멕시코

2.1. 금융 · 외환위기 전후의 경제 상황

멕시코는 1976년, 1982년 및 1994년에 외환위기를 경험하였으나, 여기에서는 1994년의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94년의 외환위기는 경제성장률의 심한 변동과 경상수지적자 확대 등으로 인한 취약한 경제구조 하에서 인위적인 환율 안정과 고금리 정책 및 정정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특히, 1992~94년 중에 발생한 경상수지적자의 누계는 US$775억(이후 US$는 $로 표시함)이었으며, 이러한 적자의 누증에 따른 외화유동성의 부족으로 1995년 1월 IMF로부터 $516억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시작한 이후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1996년 2/4 분기부터는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즉, 경제성장률은 1995년 -6.2%에서 1996년에는 5.2%로, 1997년에는 7.0%로 높아졌으며,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 그 결과 가용 외환보유고가 1994년 $62억에서 1995년 $162억, 1996년도 $217억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1인당 GDP도 1994년 $4,148에서 1995년 $2,702, 1996년 $3,500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2. 금융 · 외환위기 전후의 농업배경과 파급영향

멕시코 농업은 1970년대 이후 3차례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1986년 GATT 가입을 계기로 자유무역주의 체제로 전환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와 시장개방화가 가속되었으며 나아가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점도 농업 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즉, 성급한 시장 개방과 페소(Peso)화의 과대 평가, 유통 시설 및 농촌하부구조의 미비는 주식인 옥수수를 비롯하여,

표 1 IMF 관리체제하의 농업 부문에 미친 영향 및 대응 방안: 멕시코

농업 배경	농업부문 파급 효과	대응 방안
ㅇ 농업구조상의 문제 상존: 근대화 영농과 전통 영농이라는 생산양식과 경영규모의 이중구조 ㅇ 성급한 개방화와 계몽 미비로 수출경쟁력 저하 및 농민들 불만 가중 ㅇ 농업인프라 미흡 ㅇ 유통 채널 미흡	ㅇ 재정긴축: 농업투자 감축 및 선별 투자 ㅇ 이자율 상승: 농가부채 급증, 영농의지 약화, 생산비 증가 ㅇ 환율상승: 주곡인 옥수수, 콩 등 수입농산물 가격 상승, 야채류, 과일류, 커피 수출증가, 농자재 가격 상승 ㅇ 경제성장 둔화: 농업성장률 감소, 농업생산량 감소, 농촌인력의 타 산업으로의 유출 감소, 농가실질 소득 감소	ㅇ 중·단기 투자 전략 수립 및 민간투자 유치 ㅇ 금융지원: 미지급 부채 재조정, 새로운 신용기금 조성 ㅇ 국내 식량 증산을 통한 수입 감소 및 수출 증대 ㅇ 농업인프라: 도로, 통신, 산지와 소비자간 유통시설, 관개시설 확충, 교육 등에 민간투자 유치 ㅇ 소득증대: 직불제, Alianza para el Campo 등으로 소득 보전 ㅇ 농업의 이중구조 개선

강남콩, 밀 등 주요 작물의 국제경쟁력을 상실케 하였다.

1994년 12월 발생한 금융·외환위기는 페소화의 급락을 가속시켰고,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은 곡류의 확보에 영향을 미쳤다. 재정긴축으로 농업 투자는 감축되었으며, 이자율 상승은 농가 부채 급증과 생산비 증가를 초래하였고 농업투입재 가격의 인상은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상실케 하였다. 환율상승은 옥수수, 콩 등의 수입농산물과 농자재 가격 상승을 야기하였으며, 반면에 야채류, 과일류, 커피 등의 수출은 증가하였다. 즉, 총체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농업부문의 변화로는 곡물 생산량의 감소, 이농의 둔화, 농가의 실질 소득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1995년의 농업성장률은 -3.8%를 기록하였으나 1996년에는 농업정책개혁이 실효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1.2%로 성장하였다.

2.3. 금융·외환위기 전후의 농정변화

멕시코 정부는 금융·외환위기 이후 농업부문의 문제 해결과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조직과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1995년 6월 농업부문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산, 소비 및 유통 그리고 품목별 지원을 위한 정책 등으로 구성된 '농촌개발동맹(APC: Alianza para el Campo)'을 들 수 있는 바, 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농업관련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업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농업발전기획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대통령농업자문위원회'에 제출하며 '대통령농업자문위원회'는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결정을 관장하고 있다.

APC 프로그램의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통합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핵심 목표는 옥수수를 비롯한 콩, 수수 등의 식량 증산, 휴경지를 경작지로 전환하여 국토면적의 20% 이상의 경작지 확보, 목초지와 산악 저지대를 농지로 전용, 농촌인프라의 재정비, 새로운 관개농지 건설, 단보당 이윤 극대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농가부채 재조정을 위해서는 1994년에

표 2 **금융·외환위기 이후 농업정책 관련 변화와 내용**

	정 책 의 목 적	비 고
농업발전기획위원회	국가개발계획: 1995~2000 중 농업부문 강화 프로그램 개발('농업재건동맹' 프로그램 탄생: APC)	1995.7. 발족
대통령농업자문위원회	주요 농업정책의 결정	기존 기구
PROCAMPO	직불제프로그램의 시행(1994년)	1995년 확대
PRONASOL	국민연대프로그램의 재원으로 빈곤경감프로그램 운용	1988년 발족 1995년 확대
SIRECA	농업부채조정프로그램	1995년 실질 운영
PACTO	노사정농협의체로 물가안정을 통한 국가경제안정을 도모함. 1988년 구성된 이래 매년 국가정책의 목표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하고 있음.	1995년의 경우 경제재건을 위한 국민동맹

SIRECA(System for the Restructuring of Agricultural Overdue Portfolio)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자율과 상환기간 등을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농가 소득의 보전 및 영농 의욕의 증진 차원에서 직접지불제를 확대하였다. 즉, 직접지불제를 모든 농작물 및 축산업, 산림업 그리고 환경보호지역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보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향후 15년 동안 직접지불제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단기 대책으로는 농가부채 재조정, 채무지불 능력 함양, 기존 하부구조의 정비 등이 있으며, 중장기정책으로는 농지규모화 사업, 도로·통신·관개설비 등 농촌하부구조 확대, 산지와 소비지간의 유통시설 확충, 새로운 농가 수입원 개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 및 구매력 증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농민단체와 연계한 공공사업을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요 작물의 가격지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여 고율관세를 부과하면서, GDP의 2%에 달하는 농업신용기금을 마련하고, 보험제도(작물 및 재해보험 등)를 확대하였다.

3. 태 국

3.1. 금융·외환위기 전후의 경제 상황

태국 경제의 특징은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태국정부는 외국 외국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으며, 그 결과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외자의존형 경제개발전략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1984~1994년 동안 연평균 8~10%대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연평균 수출증가율도 2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경공업분야가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6년에는 수출신장률이 0%이었고, 수출부진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었다. 태국의 1997년 금융·외환위기는 1995년부터 시작된 수출부진으로 인한 경상수지적자 확대, 과도한 외자유입으로 인한 외채의 증가, 나아가 부동산 부문에 자금을 대출했던 금융부문이 부실화되면서 시작되었다.

금융·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1997

표 3 **태국 외환위기 전후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경제성장률(%)	8.8	8.7	6.4	-0.4	-4~-5.5%
물가상승률(%)	5.0	5.8	5.9	5.6	11.6
수출($억)	445	550	550	567	575
수입($억)	536	699	723	613	505
무역수지($억)	-80	-134	-173	-46	70

1) IMF, Press Information Notice No. 98/44, July 1998.
2)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1997
3) 1998년 경제성장률은 태국정부와 IMF 실사단간의 제4차 의향서 합의 결과임.

년도의 경제성장률은 -0.4%를 기록하였고 최근 IMF와의 4차 협상에서 1998년도 경제성장률은 -4~-5.5% 수준으로 하향 수정되었다. 태국의 노동부는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인해 1998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27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물가상승률은 1997년 5.6%에서 1998년에는 11.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3 참조).

3.2. 금융 · 외환위기 전후의 농업배경과 파급영향

태국은 수출 지향적인 경제성장정책에 따라 대외무역액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현재 GDP에서 국제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하고 있다. 수출은 쌀 위주의 1차 농산물과 섬유류 등과 같은 경공업제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농산물은 1980~96년 동안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쌀, 고무, 옥수수, 카사바, 새우, 냉동 닭고기 등이나, 옥수수 수출은 국내 축산업의 확대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총수입은 1980~96년 동안 연평균 17.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주요 수입품은 펄프와 종이이며, 다음으로 비료, 낙농품, 대두제품이다.

금융 · 외환위기로 인한 농업부문의 파급효과는 바트(Baht)화의 평가절하로 화학비료, 살충제, 제초제 등 경작에 필요한 투입재의 수입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수입가격의 상승은 국내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료품 가격이 상승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1996년 한발에 이은 이상기온으로 농산물의 생산감소가 예상됨으로써 1998년 농산물 가격은 40%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1998년도 농산물의 수출은 바트화의 평가절하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쌀의 경우 베트남 등 주변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쌀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반면, 냉장 닭고기와 새우의 수출은 증대될 전망이다.

3.3. 금융 · 외환위기 이후의 농정변화

태국정부는 바트화 하락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우위를 이용하여 쌀 수출 증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료업계는 수입관세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수입원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비료가격 상승 및 품질저하에 대처하기 위해서 단비 공급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농업협동조합이 단비를 매입하여 농가에 판매함으로써 20~40%의 비용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비료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6.4억바트의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설탕 등과 같은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격상한제도 실시하고 있다.

4. 인도네시아

4.1. 금융 · 외환위기 전후의 경제 상황

태국과 비교하여 경제개발이 비교적 늦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1990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수출은 수입 원부자재와 국내의 저임 노동력을 결합하는 형태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 경제가 부상하면서 주력 수출

표 4 인도네시아의 주요경제지표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경제성장률(%)	7.5	8.2	7.8	7.2	-12
물가상승률(%)	8.5	9.4	7.9	7.0	80
무역수지($억)	79	57	68	59	-
경상수지($억)	-28	-70	-70	-62	-

1)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1997

2) 1998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IMF 실사단간의 제4차 의향서 합의 결과임(1998년 6월 24일).

품목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경상수지 적자도 누적되었다. 이에 따라 외화차입이 증가하고 루피아(Rupiah)화의 가치하락이 유발되었다. 특히 금융기관의 부실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속화되면서 금융·외환위기로 이어지자, 1997년 10월에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IMF에 자금신청을 요청한 이후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운전자금의 부족과 함께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져 생산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한발에 따른 농업생산량 감소, 칼리만탄 섬 화재에 따른 제조업 생산 감소 및 관광수입 급감 등이 경제성장을 크게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1998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7%, 그리고 2/4분기에는 -16%를 기록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IMF와의 제4차 협상에서 1998/99 회계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0%에서 -12%로 재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8년에는 실업자가 1,600만명, 절대빈곤인구가 5,8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루피아화 가치폭락과 함께 기상이변에 따른 쌀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하여 국내 상품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생산물에는 40~50%의 수입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루피아의 평가절하는 국내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루피아의 평가절하에 의한 상품가격 상승으로 1998년 1월의 물가는 6.9% 상승하였고, 2월에는 12.8% 상승하는 등 두 달 동안 약 20% 상승하였으며 이 중 식료품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IMF와의 합의하에 1998년도 물가상승률을 20%에서 80%로 재조정함으로써 초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4.2. 금융·외환위기 전후의 농업배경과 파급영향

넓은 국토면적과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경작이 가능한 농경지면적은 제한되어 있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인당 경지면적은 0.16ha(1993)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요 식량작물은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특히 주식인 쌀은 1993년까지는 자급을 이루었으나 1994년 가뭄이후 계속 수입하고 있다. 1996년 쌀 수입액은 $7.7억에 달하였으며 1997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3.6% 감소한 49.2백만톤 수준인 것으로 추계

되고 있다. 그러나 외화 부족과 루피아의 가치하락으로 쌀 수입이 곤란하여 일본에 300만톤의 식량원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금융·외환위기로 루피아의 평가절하와 사료가격 상승으로 전체 17,600 축산농가 중에서 적어도 80%가 축산을 포기한 상태이다. 그 결과 축산농가의 사료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사료생산업체는 수입된 옥수수 비축분을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 재판매하고 있다. 또한, 1998년 3~4월에 수확될 국내산 옥수수도 재고비용의 상승으로 사료업체가 구매를 꺼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의 감소로 국내산 옥수수 가격폭락이 예상되고 있다.

4.3. 금융·외환위기 이후의 농정변화

인도네시아는 금융·외환위기와 1998년 5월의 시민폭동으로 실업률 증가, 생필품 품귀 등 사회불안이 고조되었으며, 식품유통체계마저도 마비되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은 사회소요에 의해 마비된 식품유통체계를 복구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매점매석이나 유통시 장애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조절하기 위한 특별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생필품의 안전수송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소매점이 심하게 파괴된 지역은 정부가 복구와 건설을 통하여 소매망을 활성화하고, 빈곤지역이나 원거리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가 직접 식량을 유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생필품 특히, 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식량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반정부 소요기간 동안 국영물류국(Indonesian Bureau of Logistics: BULOG)을 통하여 생필품은 적정하게 공급되었으나 소매단계에서 공급부족현상이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위해 BULOG는 1998/99년도 쌀의 수입목표를 2.85백만톤에서 3.1백만톤으로 증가하였다. 이외에 특별조치로서 식용유의 안정적인 공급과 빈민층에 대한 식량보조를 강화하고, 농촌 및 도시지역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빈민층에 대한 공공취로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동안 곡물수입을 독점하여 왔던 BULOG는 식량안보차원에서 쌀과 설탕의 수입 독점권만을 남기고 기타 농산물은 자유화했으며, BULOG의 독점포기 이후 소맥, 대두, 마늘 등에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이 BULOG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쌀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1998년 2월 생산자가격을 조곡기준 kg당 535루피아에서 600루피아로 14.2% 인상하였다. 1998년 3월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옥수수의 초과공급에 의한 급격한 가격하락으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옥수수에 대한 최저가격제(floor price)를 실시하여 kg당 550루피아로 정하였다. 그러나 사료제조업자들은 충분한 재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산 옥수수가 수입산보다 더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구매를 꺼리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kg당 가격이 350루피아까지 하락하였으며, 수확절정기에는 250루피아 이하로 하락할 전망이다.

5. 인 도

5.1. 금융 · 외환위기 전후의 경제상황

1990년대초 인도 경제는 인플레이션, 감당할 수 없는 재정 및 해외부문 적자, 국제신용도의 몰락 등으로 요약되는 위기상황을 맞이하였다. 1980년대 후반 Rajiv Gandhi 정부의 인기영합주의정책은 과도한 재정적자 및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고 인위적인 환율 고평가로 인한 해외부문의 적자는 국제신용도의 하락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1991년 7월 인도

표 5 **인도 경제개혁의 주요 분야 및 내역**

주 요 부 문	주 요 내 역
재정 안정화 - 경제개혁 성공의 필수선제조건으로서 가장 중점이 주어진 분야	• 수출보조금 철폐 • 비료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조정 • 부실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점진적 삭감 • 사회간접자본 등 개발지출의 축소
산업정책 및 외국인투자 - 경제개혁 프로그램 중 가장 혁신적으로 변화 및 개혁이 수행된 분야	• 기업의 진입과 퇴출의 장애요인 제거 • 사회기간산업의 민간부문 참여 허용: 전기발전, 화학비료산업, 항공교통 분야 등 • 34개 분야에 외국인 투자지분 51%까지 상향조정 • 외국환 관리법(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개정 및 다자간투자보장(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가입
무역 및 환율 정책 - 최종소비재 부문을 제외하고 시장개방확대 - 제한변동제(Pegged Floating System) 환율채택	• 수입금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의 자율화 • 수입쿼타 철폐 및 수입관세인하(200%(1991년)→65%(1994년)) • 평가절하 및 단일환율제 정착을 위한 이중환율제 일시도입
조세개혁 - 경제왜곡 회피 및 재정강화를 위한 조세수입 증대를 위한 신제도 도입 - 직접세(소득세)의 단순화 - 점진적 관세인하, 물품세를 종가세(ad valorem)로 전환	• 개인의 최대한계소득세율 인하(56%→40%) • 금융자산 저축에 대한 유인체계 강화 • 법인소득세율의 단일화 및 인하: 46% • 관세율 인하세 및 물품세 삭감(21%→10%) • 부가가치세 도입검토
공공부문 - 가장 개혁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	• 철저한 민영화 대신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 부실공공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삭감
금융부문 -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하여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 억제	• 정책금융의 축소 • 국내외 민간은행 신규 진입허가 • 대출이자체계의 간소화 • 자본시장의 활성화
농업부문 - 농지와 관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투자 - 개량 종자 보급 - 농촌 신용 및 금융제도의 개혁 - 소작제도의 안정화	• 중앙정부 개입 최소화 및 주정부로 권한 대폭이양 • 농업금융 부문 개혁: 이자율 현실화 및 상업은행제도 도입 등 금융업무 강화 • 협동조합의 금융업무 개선
노동시장 부문 - 과잉 보호되어 있는 노동시장	• 공공부문 고용인력감축 • 국립갱신기금(National Renewal Fund)에서 해고 근로자 보상 • 호전적 노동조합 규제

자료: Ahluwalla, M.S. (1995), "India's Economic Reforms", in R. Cassen and V. Joshi (eds.), *India: The Future of Economic Reform*,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pp.12-29에서 재정리

의 외환보유고는 불과 2주간의 수입액에 해당하는 약 $10억에 불과하였다.

이에 1991년 7월 Rao 신정부는 외환위기를 타결하기 위하여 IMF에 약 $30억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본격적인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IMF가 인도정부에 요구한 구조조정 내역은 정부재정적자의 축소 및 긴축통화정책(총수요관리정책의 수정: Demand Constraints Policies), 환율의 현실화(평가절하), 수출입 산업구조 및 임금조정 (Switching Policies)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인도 정부는 무역자유화, 변동환율제 도입, 산업통제 및 정부간섭의 대폭 철폐, 제도적 제약요건의 제거 등을 통한 시장지향적 경제정책을 표방함으로써 세계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 및 해외채무의 지불보증을 받았다.

경제구조조정(SAP: Structural Adjustment Policy)은 무역, 외국인 직접투자, 기술도입 등을 통한 세계경제와의 조화와 함께 국내기업의 투자환경조성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개혁은 주로 비농업분야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재정적자의 축소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제거, 가격자율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SAP의 주요 내역은 <표 5>와 같이 크게 8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경제개혁 중에서 산업정책 및 외국인 직접투자, 무역 및 환율 평가절하 등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개혁은 당초 목표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1년 단행한 경제개혁 이후 인도는 높은 공업성장률과 농업부문의 호조로 5년간(1992년~96년) 연평균 GDP성장률이 사상최고치인 6.5%에 육박할 정도로 고성장을 이룩하였다. 또한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호조로 외환보유고도 7개월치의 수입액에 해당하는 $300억에 육박하는 등 1990년의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도의 주요 경제지표는 <표 6>과 같이 요약된다.

표 6 **인도의 주요경제지표**

	단 위	91/92	92/93	93/94	94/95	95/96	96/97	97/98[3]
GDP성장률	%	0.8	5.1	6.2	7.2	7.1	6.8	7.0
물가상승률(CPI)	%	13.5	9.6	7.5	8.1	12.2	8.7	9.0
재정적자/GDP	%	△5.9	△5.7	△7.4	△6.1	△5.8	△5.0	△4.5*
무 역 수 지	$억	△28	△43	△24	△49	△89	△81	△88
수 출	〃	183	189	227	269	325	367	437
수 입	〃	211	232	251	318	414	448	525
FDI 승인액[1]	억 루피	53	389	886	1,419	3,207	3,615	-
외환보유고[2]	$억	56.3	64.3	150.7	208.1	170.4	201.7	-
총 외 채	$억	853	900	927	990	922	965	1,036
D. S. R.	%	30.2	28.6	26.9	27.5	25.7	27.1	28.1
환율(루피/달러)	루 피	24.5	25.9	31.4	31.4	33.4	36.0	38.4

주: 인도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임. * 정부 목표치.

1) 인도 산업부 산업승인실(SIA) 통계. 2) 금제외. 3) 주요 예측기관 전망치.

자료: Asia Development Bank, *Asian Development Outlook 1997/1998*, 1997.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Survey 1996/97*, 1997. 2.

5.2. 금융 · 외환위기 전후의 농업배경과 파급영향

경제구조조정 이전의 인도농업은 강력한 정부 보호 하에 놓여 있었다. 규제 및 가격통제로 인하여 경작자들은 농산물을 증산하려는 유인이 약화되어 있었다. 농업부문에 대한 규제는 크게 대외부문과 국내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농산물의 대외 거래 규제이다. 예를 들면, 두류(pulses)를 제외하고는 국내농산물 생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엄격한 수입규제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경제개혁 이후인 1991/92년에 농산물수출은 자국민의 식량확보라는 명분 하에 지속적인 수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는 국내 규제이다. 농산물의 국내거래는 비농업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개혁이 시작된 1991/92년에 농업부문의 국내거래에 대한 규제철폐는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그러나 대표적인 농업부문의 국내거래에 관한 규제는 북서부 지방(Punjab, Haryana, 서부 Uttar Pradesh)의 과잉 밀의 저장 및 보관에 대한 규제, 쌀 및 설탕에 대한 강제징수가격(levy price)제도, 콩과 두유에 대한 계절적 거래제한, 일부지방의 쌀과 면화에 대한 주정부의 수요독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인도식량공사(FCI: Food Corporation of India)에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민간업자의 철도 사용차별, 품목별 기구 또는 정부에 의한 국내거래 제약, 제당산업에 대한 규제, 농민협동조합에 대한 보조를 통한 민간업자들의 진입억제 등이 있다.

농업부문의 IMF 대응 방향과 전략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부분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부문의 효율성 증대와 함께 증산에 걸림돌이 되는 제약조건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주어졌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산출량은 몬순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농업생산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온 농업생산부문에 장기적인 투자와 그 맥을 같이 한다.

5.3. 금융 · 외환위기 이후의 농정변화

농업부문 개혁 및 구조조정의 주요 목표에는 농지와 관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투자, 개량 종자 보급확대, 농촌 신용 및 금융제도의 개혁, 소작제도의 안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부문의 개혁 및 구조조정은 주정부의 관할 및 책임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개혁과 투자를 위해서는 주정부의 예산확보문제가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농업부문 개혁을 위한 정책수단은 주정부의 비생산적인 경상지출과 전력 및 관개시설 투자비효율성 제거, 암묵적 보조금의 철폐, 관개시설 및 전력사용요금 합리화,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예산절감 필요 등으로 요약되었다.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은 정부간섭의 최소화와 농산물 가격정상화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IMF구제금융 이후 농업정책은 재정적자의 축소일환으로 농산물 거래 및 가격자율화, 정부규제 및 보조금 축소 등에 중점을 두었다.

표 7 기타 농산물 생산량 추이

	1980/81	1992/93
식용유(백만톤)	9.4	20.3
사탕수수(백만톤)	154.2	230.8
면화(백만 Bales)	7.0	11.6
황마(백만 Bales)	8.2	9.0
감자(백만톤)	9.7	15.7
차(백만 kg)	600.0	721.0

비료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및 철폐, 관개수로시설 및 농사용 전기 사용료에 대한 보조금 축소 및 가격왜곡을 시정하는 동시에 농산물거래 자율화의 일환으로 농산물 거래에 정부의 독과점 및 개입 축소와 함께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배분(PDS) 축소 등을 일례로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업금융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농산물 무역규제 철폐와 함께 환율평가절하로 인도산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꾀할 뿐만 아니라 수입규제 완화로 인한 농업부문의 자생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IMF 체제 이후 인도의 농업부문은 곡물생산량과 식용유, 사탕수수, 차 등 환금작물(cash crops)의 생산량이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의 경우 1980/81년의 129.6백만톤에서 1992/93년에는 179.5백만톤, 1993/94년도에는 184.2백만톤으로 1991년 경제구조조정 이후 곡물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쌀 생산량의 증가는 괄목할만한데(1980/81년 회계연도의 53.6백만톤에서 1992/93 회계연도에는 72.9백만톤, 1993/94 회계연도에는 80.3백만톤으로 증가), 이는 경제구조개혁 이후 지역간 쌀 거래의 자유화를 통한 지역간 비교우위 실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인도농업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농산물거래 자율화를 통한 경제구조조정 정책은 곡물생산량의 증대에 성공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식용유, 사탕수수, 차 등 환금 작물의 생산량증가는 가격자율화와 행정규제 축소 및 철폐 등 시장지향적 정책으로 인하여 농가가 상업농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7>.

한편, 시장경제원리의 확충으로 농업부문의 생산량은 증대하였으나 정부보조금 및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배분의 축소는 농촌지역의 실업 및 빈곤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이는 경제개혁 이후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도 경제개혁 이후 서민층의 구매력 부족으로 곡물수요가 감소하였고, 그 결과 곡물의 정부재고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인도의 경제구조조정은 소외계층을 어떻게 끌어 앉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6. 영 국

6.1. 금융 · 외환위기 전후의 경제상황

영국 경제는 1970년대 초반에 실업과 물가상승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1970년대에 들

어오면서 실업은 과거 3개년 평균수준인 50~60만명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실업이 증가하면서 1972년에는 90만명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 결과 영국 정부는 성장정책을 실시하였으나, 1973년 수입품의 가격상승으로 국내 가격도 상승하였으며 교역조건은 악화되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무역의 수지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영국 경제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1974~76년의 노동당 정부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실패하였으며, 무역수지는 개선되었으나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차입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환율은 1976년 10월 £1당 $1.55에서 1980년에는 $2.40으로 평가절하되었다. 그리고 1976년의 세계적인 상품가격의 상승은 물가상승을 부채질하였으며, 실업의 증가추세 속에서 공공지출의 삭감에 대한 각료간의 불협화음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였다.

그 결과 국제수지 적자는 1973~1977년에 약 £70억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화차입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화차입에도 불구하고 외화유동성의 부족이 계속되자 1976년 IMF로부터 £21억의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1977년에도 £11억의 지원을 받는 등 £32억 이상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IMF차관의 조건으로 영국 정부는 IMF와 공공부문 차입액(PSBR: Public Sector Borrowing Requirement)을 2년간(1977/78년 및 1978/79년) £25억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1977/78년의 PSBR은 £87억 수준임).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1977/78년 및 1978/79년에 £10억씩 삭감하고, BP(British Petroleum: 영국석유회사)의 주식 판매로 £5억를 보충하였다. IMF와의 합의 사항이 이행되면서 자금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고 £貨에 대한 절상압력도 대두되었으며, 그 결과 영국정부는 1978년부터 IMF의 자금을 상환하기 시작하였다.

즉, 1970년대의 영국 정부는 재정적자, 국제수지적자 및 인플레이션이라는 3중고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임금상승을 요구하는 노동운동도 격심하였다. 이에 영국 정부는 정부가 관여하는 영역을 축소함으로써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IMF가 영국 정부에 요구한 PSBR의 삭감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BP의 주식을 매각하는 조치 등을 취하였다. 이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79년부터 정부조직의 개편 및 공기업의 민영화 등 정부혁신을 추진하였다.

6.2. 금융 · 외환위기 전후의 농업현황

영국이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시작한 1976년 무렵 GDP중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이었으며, 그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면서 1980년에는 2.1%를 기록하였다. 한편, 금액기준으로 본 식량자급률은 1976년 51.5%에서 1980년 59.4%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나타냈다.

GDP기준으로 본 영국경제의 성장률은 1976년 1.9%이었으며, 이후 1979년까지 3%의 성장을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負)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한편, 농업부문은 1974~76년의 이상기후에 따라 1976~77년 기간 부(負)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생

산의 위축기에 있었다. 그러나 1977년에 기후가 정상화됨에 따라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1978년에는 10.1%의 증가세를 나타냈고, 1980년에는 16.1% 성장하였다. 즉, 1978~1980년은 생산의 호황기로서 농업 부문의 성장이 전체 경제의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6.3. IMF 자금신청 전후의 농정

영국이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했던 1970년대 말에 영국은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구주경제공동체)의 회원국으로서 농업정책이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공동농업정책)과 연계됨으로써 농정의 주권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농정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IMF의 자금지원을 받았던 시기의 농정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국의 EEC 가입과 관련된 농정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영국은 1973년 1월 1일 EEC에 가입하였다. 이는 농업의 전환점으로써 농업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였으며, 이러한 예로서 가격체계를 CAP의 체계로 조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품목별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국내 생산자를 위하여 고정된 가격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만 허용됨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수입이 위축되었다. 그리고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각 기관이 목표가격보다 약간 낮은 개입가격(intervention price)으로 구매하고,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보유하거나 수출토록 하였다. 이러한 체계를 운용하기 위한 비용은 FEOGA(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and Guidance Fund)가 관리하는 기금에서 제공되며, FEOGA는 농산물 수입에서 부과금을 적립토록 하였다. 즉, 해마다 정부개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수입부과금은 누적되고,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FEOGA의 자조(自助)체계는 계속되는 공급과잉으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영국은 EEC에 회원국으로 가입시 5년간의 과도기를 통하여 농업정책을 CAP에 통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식품가격을 점진적으로 EEC 수준으로 조정해야만 하였다. 농산물무역에 있어서도 EEC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차이만큼 보조금을 받는 과도기의 보상금액 적용방식으로 수정하였으나, 이러한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영국의 가격이 다른 회원국의 수준까지 강제적으로 상승해야 한다면 수요가 붕괴될 것이라는 공포감 때문에 소비자가격의 보조가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역내 자유무역은 뉴질랜드 등 EEC 역외로부터 수입되는 버터와 양고기 등 특정상품과 관련된 특정 조건으로 타협되었다. 그러나 1978년 이후에도 국내 소비자와 영연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에서 공동시장의 의의를 수용하는데 대하여 영국은 기피하고자 하였다.

유럽국가들의 대부분은 강력한 농민 이익집단과 타협하여 왔으나, 저렴한 식품가격과 시장개방에 대하여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영국은 관세와 생산자가 결정하는 가격체계에 대한 대륙의 방식을 선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농업은 대륙 국가들과 비교하여 고도로 자본화되고 상업농화되었으며 생산성도 높았기 때문에, EEC 가입으로 영국의 농

민들은 혜택을 받는 입장이 되었다.

영국은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과도기 협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품에 대하여 농업부과금의 형태로 EEC에 기여할 것을 요구받았다. 1973년 재무부는 영국에서 EEC로의 지출이 1980년까지 £3.8억일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로는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하였다. 이러한 지출규모에 대하여 영국과 EEC는 재협상을 통하여 영국이 농업부과금으로 지불하는 금액의 60%를 영국으로 환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국 농민들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 시사점

이상에서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및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았으며,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 농업 부문보다는 금융제도와 그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 부문과 농촌사회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멕시코의 경우 1994년의 농민 봉기가 외환위기의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농산물 수급불안 현상이 나타나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정치·사회적 불안이 가속화되었던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 부문과 농촌사회는 가장 변화가 느리고 보수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집단이 불안정할 경우 그 나라는 어떠한 형태로든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 시사점은 농업생산이 일단 침체되면 단기간에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다. 멕시코의 경우 1982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농업생산기반도 정체되어 주곡인 옥수수를 수입하는 등 곡물순수입국으로 전락하였으며, 농업생산량은 1996년에 와서야 1981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쌀 생산기반이 취약해지면서 국제사회에 쌀 원조를 요청하고 쌀 생산 증대를 위하여 생산자 가격을 인상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였으나 생산증대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는 점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경제위기 시에도 농업생산력의 유지를 위한 생산기반은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주곡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화유동성의 부족으로 발생한 금융·외환위기시에도 농산물을 수입해야 한다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농산물 수급불안과 가격 폭등에 대비하여 농산물 비축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러한 위기를 최소의 고통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도 제고해야 한다.

셋째, 농업생산성의 제고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농업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영국이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등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생산기반의 확충이 이루어진 농업부문은 생산성이 높았기 때문에 조기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였다. 즉, 1978~1980년 기간의 농업생산은 호

황기를 맞으면서 농업 부문의 성장이 전체 경제의 성장률을 웃돌았다. 경제위기국면에서도 영국농업이 건실하게 성장하였던 배경은 영국농업이 자본화되고 상업농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농업부문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으면 경제위기는 조기에 극복될 수 있다는 교훈을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인도의 경우 각종 보조금을 철폐하는 대신 생산기반 투자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여 농업과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 농업 부문도 생산기반이 완비되어 있다면 농업 경쟁력은 현재보다 상당히 높았을 것이며, 이에 따라 농산물 수입은 그만큼 감소되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농업투입재 가격의 안정은 농업발전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이다. 농약, 종자 및 사료 등 농업투입재 가격의 상승은 해당산업의 위축뿐만 아니라, 농민에게도 피해가 전가되고 농업생산의 감소도 초래할 수 있다. 태국은 환율상승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농업투입재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여 농작물 생산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료가격의 상승에 대처하여 농업협동조합이 비료를 매입·판매하고 정부는 비료가격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즉,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해서는 투입재 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비료와 농약 등 농용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국산화율을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1997년말과 1998년초의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축산업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국내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위기상황에서도 최소의 고통으로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자본자유화에 따라 외국자본이 국내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외국자본의 진출은 국내 투자 활성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국내시장이 다국적 기업 등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도 있다. 멕시코의 사료시장은 자본자유화에 따라 외국자본의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따라서 축산업의 발전은 외국자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8년에 들어와 흥농종묘와 중앙종묘가 외국자본으로 넘어갔으며, 이에 따라 종자시장이 외국자본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시에도 국내 농업관련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외국자본에 의한 독과점을 막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 부문과 농촌사회는 보수적이며 변화가 상대적으로 느린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이 불안정할 경우 그 나라는 어떠한 형태로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과 농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요약 및 결론

1962년부터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추진된

이후, 우리 나라는 처음으로 금융·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저성장, 고물가, 고실업으로 특징지워지는 IMF 관리체제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더욱이 우리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크고 세계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제2의 외환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IMF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국가들의 금융·외환위기시의 농업정책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위기시에 우리 농정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영국 등을 사례로 선택하였다.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던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영국 및 인도의 공통점은 외화유동성의 부족 때문에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멕시코는 환율과 금리 등의 상승으로 농업부문은 침체되었으나, 구조조정과 수출증대로 농업성장률은 회복되었다. 그러나 사료 및 양계업 분야의 국내업체 도산이 속출되었으며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었다. 농정의 변화로는 1995년 정부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업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직접지불제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농업하부구조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등이 특기할 사항이다.

태국은 환율상승에 따른 농자재 수입가격 상승으로 농산물생산비와 가격이 상승하였고, 사료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축산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농업부문도 구조조정 중에 있으며, 비료가격 상승에 대처하여 농업협동조합이 비료를 매입·판매하며 정부는 비료가격 안정을 위해 자금지원을 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쌀과 축산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밀, 옥수수의 수입수요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1998년 쌀 부족량이 300만톤 수준으로 추계되고 있어 일본 등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쌀과 설탕 등 9개 기본 식료품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농업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규제를 철폐하는 과정에서 농업 부문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정부개입의 최소화, 가격 자율화, 보조금 축소 등을 통한 생산의 효율성 증대 및 증산 등이다. 이 결과 곡물 및 환금작물의 생산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보조금의 축소 및 철폐, 그리고 곡물가격 자율화로 농촌지역의 실업과 빈곤이 증가하였다.

영국은 EEC 회원국으로서 농정을 CAP 체제로 전환 중이었으므로 농정에 변화가 거의 없었고, 생산성도 높았기 때문에 농민들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영국 등의 농업과 농정을 우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나, 시사점은 찾을 수 있다. 즉, 정치·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이 중요하며, 농업생산이 침체되면 단기간 내에 회복이 곤란하므로 농업생산력의 유지는 필요하고, 따라서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농업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업투입재 가격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외국자

본의 농업 부문 진출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김종현. 1979. 「경제사」, 경문사.

대외경제연구원(아주경제실 동남아팀). 1998. "동남아 금융위기 심화로 경제성장 둔화", 「아주경제」.

최윤국. 1994. "멕시코의 경제구조와 전개과정," 「중남미문제연구」, 제12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Asia Development Bank. 1997. *Asian Development Outlook* 1997/1998.

Ahluwalla. M.S. 1995. "India's Economic Reforms," in R. Cassen and V. Joshi (eds.) *India: The Future of Economic Reform*,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Ball, James. 1998. "The British Economy at the Cross Roads," *Financial Times Management*.

Burrell, Alison, Berkeley Hill and John Mdeland. 1990. AGRIFACTS: A *Handbook of UK and EEC Agricultural and Food Statistics*, Harvester Wheatsheaf.

Cairncross, Alec., 1995. *The British Ecnomy since 1945*, Blackwell Publishers.

Calva, Jose Luis. 1996. 11. "La economia nacional y la agricultura de Mexico a tres anos de operacion del TLCAN," NAFTA 3국간 투자 세미나 자료.

Chavez, Luis Felipe. 1995. *Privatization of Mexican Ejidos*, http://www.aad.berkeley.edu/95journal/LuisChavez.html.

EIU. 1995. 10. 31. *Business Latin America*.

Government of India. 1997.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Survey* 1996/1997.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8. "Press Information Notice, No 98/44".

Kim, Kyeong-Duk. 1997. "Impact of Structural Adjustment on Employment, Food Availability, and Poverty: Indian Experience,"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 20, summe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LAN. 1995. 12. *Economy & Business Reports*: 멕시코 정부 보고서.

Memed, Gunawan, 1997. "Market Prospects for Upland Crops in Indonesia," Working Paper 25, The CGPRT Center.

OECD. 1995. *MEXICO, OECD Economic Surveys*.

_____. 1997.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in Mexico*.

_____. 1998. *MEXICO, OECD Economic Surveys*.

Schwentesius, Rita. 1996. 5. "La cartera vencida del sector agropecuario," Internet 제공.